

中央藥大 同門會報

The Alumni News of the Chungang University College of Pharmacy

2015
vol. 36

Summer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http://www.caupharm.or.kr>



Contents

중앙약대 동문회보 2015년 여름호

시론

- 3 **우리 행복 “건배”**
홍종오(21회) 대전광역시 약사회 총회의장

동문회소식

- 4 **화보**
- 9 **6년제 첫 약학대학졸업생이 배출됐다**
- 11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제58차(2015회계년도) 정기총회**

인터뷰

- 16 **여러분의 참여가 곧 모교의 발전입니다!**
김현태(20회) 20대 동문회장
- 17 **여동문들의 끈끈한 통합과 소통을 위하여!**
곽나윤(27회)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14대 여동문회장
- 18 **동문들의 다양한 기부와 이를 바탕으로 재학생과의 교류가 절실히 필요한 때**
황완균(26회) 중앙대학교 대외협력처장

동아리소식

- 19 **생약반**
이정규(11학번) 반장

동기회소식

- 22 **뜻 깊은 잔치**
조현인(8회) 동문
- 24 **39회 졸업20주년 기념식을 마치고**
길봉진(39회) 준비위원장

약국도움이야기

- 27 **바이오의약품의 전반적인 이해**
최병철(21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심사위원

- 32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신입교수**

- 33 **장학기금**

- 35 **만평**

- 36 **편집후기**

우리 행복 “건배”

행복지수의 조건 중에 하나가 “가족, 친구가 최우선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의 절대적인 원천은 친구와 가족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추구할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가족과 친구는 바로 우리 약대 동문들일 것입니다. 행복의 원천이 동문관계도 해당된다는 얘기이지요!

많은 이들은 일하고, 먹고, 마시고, 말할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일과 운동, 산책, 취미활동, 종교활동 등 신체적 심리적 에너지를 많이 써야 할 일들이 큰 행복감을 느끼게 한답니다.

OECD 국가 중 우리의 행복지수는 가입국 34개국 중 32위랍니다. 우리는 왜 이리 낮은 것일까요? 문제는 “비교행복”입니다. 남과의 비교에서 느끼는 만족도가 낮은 것이 행복이 아닌 불행이라고 느끼기 때문이지요.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지만 남보다 조금 뒤쳐진 듯 느껴지면 울적해지기 때문이겠지요. 여기서 느껴지는 답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 스스로 만족하는 삶일 것입니다.

행복은 또한 조건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즉, 더 나은 조건이나 환경에서도 결코 느낄 수 없다는 말이지요.

국민전체의 행복지수는 하위권이지만 우리 약사들의 상대적 행복지수는 어떨까요? 바로 눈앞에 닥쳐있는 작고 큰 현안부터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약사들의 현실은 그리 밝지 못합니다. 그래서 행복조건 중에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의 느낌은 최종 종착지가 아닙니다. 과정에서 경험하는 작고 소소한 기쁨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정립해야 하고 친밀감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사랑하고 일하며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사실을 배우고 우리 동문들과 남은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약사로서 살기에 행복하게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그리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약사라는 직업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항상 건강하기를 바라면서 나로 인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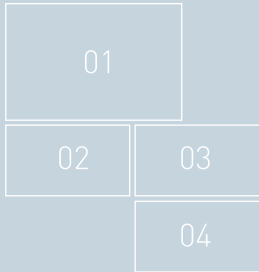
동문 선후배님들!! 우리의 행복을 위해 “우리 모든 일”을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합시다. “건배~~~”



홍 종 오(21회)
대전광역시 약사회
총회의장



- 01 3월 19일_ 장학기금운영위원회의
- 02 3월 26일_ 고문단회의
- 03 4월 17일_ 감사수감
- 04 4월 19일_ 부산지부 정기총회





- 01
- 02
- 03
- 04



- 01 4월 26일_ 최종이사회
- 02 6월 9일_ 신규회장단업무 인수인계
- 03 6월 10일_ 강서분회 모임
- 04 6월 12일_ 편집회의





01 6월 19일_ 고문단회의

02 6월 19일_ 강동분회 모임

03 6월 20일_ 서초분회 모임

01

02

03





- 01 6월 23일_ 9회 동기회 졸업 50주년 기념 장학기금 5,000,000원 기탁
- 02 6월 25일_ 천안분회 모임
- 03 7월 2일_ 제1차 회장단회의



01

02

03





01

02

03



01 7월 23일_ 초도이사회

02 8월 17일_ 온누리약국체인 박종화(23회) 대표 방문

03 8월 18일_ 한미약품 임성기(6회) 회장 방문





6년제

첫 약학대학

졸업생이

배출됐다

35개 약학대학 가운데 가장 먼저 학위수여식을 진행한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은 2월 11일 오전 11시 약학대학 3층 대강당에서 '2014학년도 약학대학 학위수여식'을 가졌다.

대강당은 졸업식을 하는 약학전공 59명과 제약학전공 56명 등 총 115명의 졸업생과 가족들로 가득찼다. 한껏 멋을 부린 학생들은 학사가운을 입고 학사모를 쓴 채 설레는 마음으로 수다를 떠느라 여념이 없었다. 또 매일 같이 보던 친구들을 자주 볼 수 없을 지도 모른다는 아쉬움에 연신 사진을 찍느라 바쁘기도 했다.

한상범 약학대학장은 “6년제 학제개편으로 24학점을 수강하고 시험을 쳐야 하는 상황에서 대부분 학생들이 잘 버티고 졸업을 하게 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약사국시 결과가 남기는 했으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높은 합격률로 약사면허를 손에 쥐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 학장은 “단지 학장으로서가 아니라 약사 선배로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믿으라'고 조언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여러 번의 실패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 실패를 받아들이는 용기를 통해 꿈을 이루고 도전하라”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노력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으 것"이라고 조언했다.
 장재인 동문회장도 축사를 통해 "졸업은 인생에 있어 새로운 출발점에 서는 것"이라며 "앞으로는 약학대학생이 아닌 직능인으로서 국민들의 건강은 내가 책임진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바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 7만 약사의 수장인 조찬휘 대한약사회장과 이광섭 한국병원약사회장, 손의동 대한약학회장 모두 우리의 동문이러는데 자부심을 느낀다"며 "중앙약대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졸업생과 동문

의 성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대학수석으로 임창정 학생이, 학과수석으로 이아영 학생이, 최우등상에는 최예슬, 김도연 학생이 상을 받았다.
 이날 아들의 졸업식에 참여한 김영후(26회) 동문 (경기지부 수원시분회 전 분회장)은 아들에게 "기존 약사들의 영역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영역으로 파이를 키워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학원 진학을 앞둔 아들 김다원 학생은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14학년도 제59회 졸업생 명단

약학전공

강*현 강*실 권*예 김*인 김*원 김*나 김*연 김*연 김*은
 김*천 김*리 김*훈 김*한 김*현 김*정 나*지 박*규 박*은
 박*식 배*정 백*지 백*연 서*경 서*욱 서*준 신*휘 신*현
 신*호 심*주 오*진 우*원 이*수 이*진 이*희 이*은 이*호
 이*경 이*규 이*원 이*은 이*형 이*희 임*정 임*영 장*호
 전*주 전*인 정*환 장*호 조*경 조*언 최*영 최*슬 최*화
 한*선 한*훈 허*인 황*지 황*영 【이상 : 약학전공 59명】

제약학전공

고*명 권*아 금*경 김*숨 김*윤 김*영 김*희 김*연 김*원
 김*주 김*진 김* 김*혜 김*늘 김*수 김*진 남*리 박*찬
 박*환 박*호 박*현 박*지 박*림 배*원 신*미 안*영 안*주
 안*진 양*석 양*희 오*유 왕*원 이*두 이*연 이*빈 이*영
 이*정 이*정 이*정 이*욱 이*기 이*우 이*찬 정*숨 정*무
 정*석 정*련 정*원 조*호 주*진 최*준 최*필 최*석 허*석
 홍*화 황*하 【이상 : 제약학 전공 56명】

수상자 명단

교내학술상

구분	성명
최우등(대학수석)	임*정
최우등(학과수석)	이*영
최우등	최*슬, 김*연
우등	김*숨, 박*은, 서*준, 이*빈, 김*진, 고*명
우수	황*지, 김*리, 이*경, 김*혜, 이*우, 강*현, 홍*화, 김*원, 최*준, 정*원, 한*선, 권*아, 김*은, 허*인, 황*하

교외수상자

기관명	성명	기관명	성명
대한약사회	임*정	여지동문회	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영	안양동문회	황*영
한국약학교육협의회	황*지	일동제약(주)	이*빈
서울특별시약사회	최*슬	삼진제약(주)	김*진
경기도약사회	김*연	건일제약(주)	고*명
동작구약사회	김*숨	(주)은누리약국체인	이*정
공로상	주*진	본동문회	서*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제58차(2015회계년도)

정기총회

중앙약대 동문회 신임 회장에 김현태(20회) 동문 만장일치로 선출!

지난 5월 19일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제58차(2015회계년도) 정기총회가 중앙약대 건물 11층 University Club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총회에는 장재인 회장과 김정호 사무총장을 위시한 현 회장단을 필두로 최종목, 김채윤, 임완호, 권혁구, 유정사, 윤대봉, 서국진 고문은 물론 김창종 자문위원과 이종각, 임영식 감사가 자리를 같이 하여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총회의 무게중심을 잡아주었다. 학교측에서는 한상범 학장, 최영욱, 황광우, 오경택, 김은영, 강원구, 오경수, 이지윤, 서원희 교수가 참석하여 정기총회를 축하했다.

대한약사회 조찬회 회장이 여러 가지 일정을 뒤로한채 정기총회에 참석했으며, 경기도약사회 함삼균 회장, 인천시약사회 조석현 회장, 병원약사회 이광섭 회장, 대외협력처 황완균 처장, 경기도 마약퇴치 운동본부 박기배 회장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또 서울대약대동문회 조원일 부회장, 성대약대동문회 신충웅 회장, 이대약대개국동문회 신성숙 회장, 숙대약대동문회 김종희 회장, 숙대약대개국동문회 김인옥 회장, 동덕약대동문회 심숙보 회장, 한국여약사회 서정숙 회장 등 내빈들이 우정 참석하여 총회의 의미를 배가시켜 주었다.

앞서 장재인 동문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앙약대가 개교 60주년



역사 이래 가장 화려한 시기를 맞고 있다"며 "이는 동문 선
 후배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잘 이뤄졌기 때문이다"며 동문
 회 및 모교 발전에 힘써준 동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조찬회 대한약사회장은 축사에서 "약대 6년제 약사 배출,
 FIP 서울총회 2017년 개최 등 위기를 극복하고 약사직능이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며 "대한
 약사회는 약사 정체성 확립과 약사직능의 발전, 약권 수호
 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총회에서는 먼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장학기금)
 결산 심의와 2015년도 사업계획,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
 계(장학기금) 예산(안) 등이 원안대로 승인하는 한편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신임 집행부에게 위임키로 했다.
 아울러 총회는 20대 신임 회장에 김현태씨를 선출했다.
 또한 감사에는 박석동(15회), 정명진(18회), 이경옥(19회)씨
 를, 여자동문회장에는 곽나윤(27회)씨를 각각 선임했다.
 김현태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역사와 전통이 남다른 모교
 중앙약대동문회장을 맡게 돼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책임이 막중해 매우 부담스럽고 어깨가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20대 회장으로 선출됐는데 그동안 열심히 일해 오신
 10여회 기수 회장들 보다 2배 열심히하라는 뜻인 것 같다"
 며 "동문회장으로서 약사사회의 중앙을 지키는데 앞장서는
 모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상자 명단

총장 공로패



조익환(8회) 삼진제약 회장



28회 동기회 (이해룡 회장)

15년근속 표창패
 박은희 실장

학장 공로패



지명구(28회) 천안분회 회장



임성호(36회) 강서분회 회장

총동창회장 공로패



이완철(17회) 영일약국



이희정(17회) 범도약국



김기명(18회) 즐거운약국

동문회장 공로패



구종모(14회) 우리약국



이은술(16회)

오황영(22회) 메디팜제주약국

조근태(23회) 희구약국



김인혜(29회) 장수약국

제20대 회장단

직위	성명	기수	직위	성명	기수	직위	성명	기수	
회장	김현태	20회	부회장	박종화	23회	부회장	이영주	28회	
수석부회장	정찬헌	20회		임준석	23회	사무총장	이해룡	28회	
부회장	권오규	20회		정덕기	23회	부회장	장원규	28회	
	김대승	20회		한치완	23회		전금용	28회	
	김홍진	20회		이광섭	24회		구영삼	28회	
	문주기	20회		이규삼	24회		정원태	28회	
	박기배	20회		이범도	24회		최용철	28회	
	유영내	20회		함삼균	24회		손병로	29회	
	이상일	20회		함한성	24회		유종운	29회	
	이신규	20회		황규진	24회		강대용	29회	
	이영희	20회		김광호	25회		사무부총장	김광식	30회
	이호선	20회		김희섭	25회			백영주	30회
	임경원	20회		이내홍	25회	윤미숙		30회	
	임구래	20회		이광인	25회	최병원		30회	
	최석중	20회		최두주	25회	홍성광	30회		
	김수배	21회		권송상	26회	정선중	32회		
	김중호	21회		김안식	26회	조양연	32회		
	최병철	21회		최민규	26회	조준상	33회		
	박전희	21회		한갑현	26회	부회장	한일권	34회	
	홍종오	21회		곽나운	27회		김영미	34회	
	이준상	22회		김정호	27회		김보원	34회	
	강희윤	22회		박영달	27회		신수민	34회	
유대식	22회	한봉길		27회	도건호		35회		
전일수	22회	김영희		28회	이경선		35회		
최광훈	22회	김희식		28회	임중식		35회		
		양덕숙		28회	윤재경		39회		

제20대 상임위원단

직위	성명	기수	직위	성명	기수	직위	성명	기수
기금운영관리	김현태	20회	편집	김기명	18회	병원	이광섭	24회
· 특별위원회			윤리	김홍진	20회	섭외	한봉길	27회
· 권익옹호			제약경영	이상일	20회	홍보	최용철	28회
사무총장	이해룡	28회	ROTC	조진환	20회	체육	한일권	34회
사무부총장	김광식	30회	공직약사	박전희	21회			
사무부총장	백영주	30회	학술	최광훈	22회			

제20대 이사

1회	김옥동, 김기홍, 김순일, 박학전, 손동현, 이광표, 이동화, 장 레, 홍흥만
2회	김종욱, 김홍식, 박문호, 신양균, 이문규, 정덕화, 지선훈, 최관용, 최영대, 한성순, 황재수
3회	강승조, 김석자, 노인배, 박기하, 박종순, 배영식, 선우연, 손석우, 안경식, 이기상, 이병균, 최종목
4회	구본원, 김기호, 김현용, 김흥수, 문창하, 박노일, 박승배, 안국영, 이창우, 정재배, 천흥기, 최영만, 한민희, 허인희
5회	강태일, 김상오, 김영배, 김채운, 박영규, 변동선, 신화우, 윤원영, 이명환, 이송학, 임영규, 정훈교, 정혜영, 조동준
6회	김경희, 김동열, 박정배, 신정숙, 안병한, 안인혁, 유관열, 유상열, 이현영, 임성기, 임완호, 임철부, 장정희, 장지용, 전희태, 홍병석
7회	강승안, 김영덕, 김영일, 김정부, 박명신, 박상용, 박수배, 박숙자, 배동운, 서명규, 신완균, 유영후, 이기안, 이능세, 이양현, 이용원, 장영수, 정재일, 정조원, 최춘자
8회	곽유환, 김돈기, 김신자, 김연희, 김홍자, 김희영, 박도규, 박번일, 배영애, 유영수, 임상목, 장영자, 조의환, 한석원, 허근희
9회	권태섭, 권혁구, 김영부, 김영빈, 김의섭, 김 철, 김홍래, 문영동, 박성학, 박장우, 양무웅, 윤광노, 이규진, 이근배, 최영근
10회	김영호, 박호일, 방순환, 변도문, 서정목, 안영태, 유정사, 이대윤, 이양원, 이영민, 이홍수, 정수길, 정영기, 조규동, 주정덕
11회	고승하, 김미자, 김승업, 김정길, 김창중, 박상희, 박승보, 박찬희, 박희경, 신명승, 이상길, 정덕호, 최옥출, 황공용, 황문상

12회	강옥희, 김 구, 남기탁, 노덕재, 노석준, 박영찬, 서태욱, 심재웅, 염윤기, 우준하, 이관하, 이성우, 이정규, 이호섭, 이효훈, 조택상, 최병호
13회	구연홍, 김병현, 김종성, 문재빈, 박동규, 서국진, 안병식, 엄계숙, 윤해선, 이종각, 이충식, 임유재, 조성복, 최창엽
14회	구종모, 김동원, 김명웅, 김윤국, 김종렬, 박기진, 신광근, 양인승, 엄태항, 윤대봉, 정진모, 조길도, 조영연, 현수홍
15회	강용순, 고동석, 김영만, 김용의, 박석동, 박원봉, 오세일, 원장희, 윤종준, 이상용, 이영운, 임순만, 임영식, 정해성, 조찬희, 최영덕
16회	강명채, 고숙자, 권영복, 김광식, 백승복, 송용만, 안태환, 이상규, 유기욱, 이범준, 이은솔, 이은주, 조기현, 차동일, 최광식, 최창원, 하상권, 한인희, 허사길
17회	김기중, 김성지, 김성택, 김인형, 김인희, 김재천, 김태성, 박재식, 선우영환, 송진섭, 신상직, 신창익, 양희익, 유승화, 윤수근, 이동우, 이완철, 이희정, 장재인, 전상훈, 전선영, 전주준, 정갑진, 주완표
18회	강응모, 김기명, 김상각, 김애경, 김중기, 박계환, 박광숙, 이성배, 이원영, 임태영, 전광우, 전춘이, 정명진, 조중형, 최한규, 한창일
19회	권창호, 김경오, 김미담, 남상구, 박효식, 안형수, 옥태석, 유태일, 윤건섭, 이경욱, 이창욱
20회	권오규, 김대승, 김현태, 김홍진, 류화송, 문주기, 박기배, 박영근, 송창수, 유영내, 이극선, 이상일, 이신규, 이영희, 이호선, 임경원, 임구래, 정찬현, 조진환, 최석중, 허문영, 한광식
21회	김동연, 김동학, 김수배, 김중효, 박전희, 백운경, 이규섭, 이상준, 전명선, 최병철, 한성희, 홍종오

22회	강명희, 강희윤, 고부환, 김홍진, 손의동, 오황영, 유대식, 이규홍, 이명옥, 이준상, 이진우, 이현희, 전일수, 전철호, 정진호, 차달성, 최광훈, 한만영, 한상훈	34회	김보원, 김영미, 신수민, 한일권
23회	강한구, 곽창림, 김영식, 김영출, 김영표, 박종화, 박희용, 서동철, 이승하, 임준석, 정덕기, 정세희, 제갈희, 조근태, 조병훈, 조종호, 하종렬, 한치완, 홍순욱	35회	황광우, 곽정근, 김미정, 도건호, 이경선, 임중식, 최규룡, 황광우
24회	김승재, 김태두, 양성철, 이광섭, 이규삼, 이범도, 임무호, 정종근, 조종래, 최영옥, 함삼균, 함한성, 황규진	36회	박기호, 우경아
25회	고성권, 김광호, 김두수, 김영식, 김춘규, 김희섭, 이광인, 이내흥, 이민원, 이재희, 전경숙, 조석현, 최두주	37회	김학림
26회	권송상, 김안식, 김정수A, 김학철, 문형철, 백낙기, 선우일원, 손영상, 오옥희, 윤광중, 윤용혁, 이영준, 최민규, 최태영, 하재일, 한갑현	38회	김수규
27회	곽나윤, 김덕진, 김정호, 민병희, 박수길, 박영달, 변옥희, 서평석, 오순용, 오홍설, 유재수, 윤영한, 이원일, 이창오, 최기선, 최종대, 최종식, 한봉길, 현기원	39회	윤재경
28회	고재호, 구영삼, 김영희, 김희식, 신영무, 안희규, 양덕숙, 유희동, 이병천, 이상수, 이숙희, 이영주, 이해룡, 장원규, 전금용, 정원태, 조상오, 조형진, 지명구, 최용철	40회	이태상
29회	강대용, 김은진, 김인혜, 서경원, 손병로, 유승열, 유종운, 이종민, 이종옥, 이 준, 이진자, 하숙량, 한일룡, 현상배	41회	윤지희, 김소연
30회	강성희, 고석일, 김광식, 김상의, 김정일, 김혜수, 도민숙, 박복자, 백영주, 신일근, 윤미숙, 이장무, 이진우, 정의차, 최병원, 최병태, 홍성광	42회	정동만
32회	김신규, 이경우, 정선중, 정영복, 조양연	43회	이경은
33회	김은곤, 김용선, 이정수, 임희원, 조준상	44회	이선영
		45회	김권식
		46회	민지홍
		47회	남우현
		48회	차자현
		49회	박진석, 김원호
		50회	남윤성
		51회	문효진
		52회	장진영
		53회	강형규
		54회	임재춘
		55회	김민성
		56회	이경민, 신상윤
		59회	주혜진

김 현 태(20회)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20대 동문회장

여러분의 참여가 곧 모교의 발전입니다!



존경하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여러분!

벌써 말복이 지나 초가을 문턱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5월 20일 20대 회장으로 선임이 된지 두어달이 지나면서 먼저 지면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의 전통을 이어 나가기에 부족한 저이지만, 많은 동문들이 쌓아온 역사를 지켜나가는데 제가 앞장을 서게되어 설레임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20기가 처음으로 회장이 되었음은 이전 기수보다는 젊은 회장으로써 아마 역사와 전통의 모교를 위해 열심히 일해 달라는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는 중앙인으로서 중앙의 의미를 되새겨, 모교인 중앙을 지켜나가는데 누구보다 앞장 서겠습니다.

약사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본교 출신 선후배님의 역할을 배가시켜 모교의 자긍심을 앙양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그동안 꾸준히 진행해온 여러 가지 사업 중 학교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장학사업, 동문간 친선도모에 매우 효과적인 체육대회, 동문간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동문회치 발간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발전시키겠습니다.

장학사업을 심화시킬 수 있는 장학재단운영과 동문과 재학생간의 인적 네트워킹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젊은 후배기수의 동문회 참여활성화를 위하여 당연직 이사선임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위의 모든 일들을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곧 모교의 발전입니다.

그간 역사와 전통을 쌓아온 여러 선배 회장님과 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저 또한 중앙을 지키며 20대 회장으로써 동문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너무 더웠습니다. 메르스사태도 긴 여정이었습니다.

내외 환경으로 인하여 여러모로 어려우시겠지만,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의 발전에 대해서 한번쯤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출발의 맨 앞에 제가 설 것입니다.

동문 여러분들의 건승하심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곽 나 윤(27회)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14대 여동문회장

여동문들의 끈끈한 통합과 소통을 위하여!



전국에 계신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여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여동문회장을 맡게 된 27기 곽나윤입니다.

제가 대학졸업식을 마치고 교문을 나서던 기억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30년이 흘러 동문회에서 회장 맡아야 할 순서가 왔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 모교인 중앙대학뿐만 아니라 보건의료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약공부를 하기 위해 약국 문 닫고 밤늦게 모여 졸린 눈을 비비면서 열공 했던 기억... 하지만 한약분쟁으로 그 사기가 꺾여 약국에서 당연히 보였던 한약장과 약탕기는 현재는 거의 사라졌고 한약사라는 이상한 돌연변이의 탄생으로 우리주변에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감기약, 피부약, 관절염약 조제 잘한다고 멀리서까지 환자분들이 약국을 찾곤 했는데 이전 의약분업이라 해서 조제권도 뺏겨버리고, 옛날에는 길가 뚝이 좋은 곳엔 어김없이 약국이 있었는데 이제는 처방전을 받을 수 없는 곳엔 김밥집이나 편의점으로 자리를 내어 주어야 하는 아픈 현실입니다. 약사들의 오랜 숙원사업 이었던 약대 6년제가 실행되어 올해 처음으로 6년제 약대 졸업 약사들이 배출되면서 기존의 4년제 약대 졸업 약사들간의 묘한 거리감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은 완전 무시되고, 단지 국민의 편의성을 위해서 상비약이 편의점으로 나가야 했던 뼈아픈 기억들, 이제는 정부의 서비스산업 활성화라는 명분에서 법인약국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기 위치에서 약사 직능을 묵묵히 지켜가고 있을 우리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 동문은 영원합니다.

지금까지 선배님들께서 사랑과 정성으로 잘 만들어 오신 우리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여동문회를 위해서 과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과 부담이 됩니다.

우리는 여동문회이기 전에 약학대학 총동문회에 소속되어 있긴 하지만 타 여자대학동문회 동문들처럼 끈끈한 소속감이나 동문간의 단결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의 임기 2년간 꼭 해야 할 숙제가 우리 여동문끼리의 통합과 소통이라 생각합니다. 선배가 길을 열어주고 후배가 따르고 서로 언니 동생하며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0년간 제가 어디에 있던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이라는 것 때문에 외롭지 않게 동문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큰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선배님들, 동기분들, 그리고 후배님들 사랑합니다.

황 완 균(26회) 중앙대학교 대외협력처장

동문들의 다양한 기부와 이를 바탕으로 재학생과의 교류가 절실히 필요한 때



우선 약학대학 동문회 20대 회장으로 추대되신 김현태 동문님께 축하와 아울러 약대동문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는 2015년 1월부터 대외협력처장을 맡은 약대 78학번 황완균입니다. 이미 세계 명문사립대학들은 학교의 재정확충을 위하여 발전기금 모금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졸업동문 및 독지가에게 제시하고 모금함으로써 학교의 발전과 학생들이 안정적 학업을 수행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대외협력처의 기능이 발전기금을 모금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는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한 사회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학 역시 빠르게 적응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도태되고 맙니다. 따라서 대외협력처는 이런 사회의 지식과 정보를 동문들로부터 재학생에게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동문, 학생, 교수 및 교직원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우수 대학평가 기관에서는 다양한 기준으로 대학을 평가하여 랭킹을 발표하고 있으나 최근 중요한 잣대는 졸업동문과 재학생간의 다양한 직능 교류가 얼마만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로, 중앙대학교의 경우 타 대학에 비해 국제평가 랭킹이 유독 하위에 속하는 것은 이 부분 때문이라 볼 수 있고 현재 소수의 단과대학 또는 전공만이 동문회가 결성되어 있을 뿐이며, 되어 있더라도 대학내에서 인지를 못하는 극히 개인적 모임의 성향이 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약학대학 동문회의 경우 중앙대학교 내에서 가장 전통있는 동문회이고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기금 역시 가장 많이 기부를 하고 있으나 현 세계대학 평가기관이 요구하는 동문과 후배간의 활발한 교류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전통적 각 기수를 나열하는 동문모임이 아니라 대학졸업 후 진출한 각 직능 즉 병원, 제약, 지역약국 및 공직약사 등 다양한 직능과 학생간의 많은 교류가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약대동문회의 경우 다양한 동문 직능 모임이 있지만 학생과의 교류는 없으며, 있어도 개인적인 친분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는 대학 발전과 평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 수 있습니다.

최근 '100주년기념관 및 경영경제관' 건립과 관련하여 생긴 경영경제계열 동문회에서 파생된 직능별 동문단체가 학생과 졸업동문간에 교감이 되고 있고, 이는 자연스럽게 재학생을 위한 재능기부, 장학 및 발전기금 모금과 연결되어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대외협력처는 2014년도부터 경영경제 계열의 졸업동문 정보를 단순 D/B 작성에 그치지 않고 직능별로 분류하여 졸업동문과 재학생간의 다양한 교류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현 김현태 회장님이 직능별 동문모임 활성화를 강조하셨고, 이를 이용한 재학생간의 멘토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하여 교감을 하시고 대외협력처에 이와 관련한 약대 D/B 제작 및 전략을 제안하셔서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 이는 약학대학 학장과 소속 교수들의 관심과 실천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중앙대학교는 새로운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계속의 중앙대 명문 약대가 되기 위해서는 각 직능분야에서 성공하고 존경받는 동문들의 다양한 기부와 이를 바탕으로 재학생과의 교류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대외협력처는 항상 동문 여러분들 옆에 있겠습니다. 먼저 다가가는 대외협력처가 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5.05.30_ 봉화 신입생환영회 약초시험장

역사와 전통,
최다 졸업생을 자랑하는

생약반

1953년 약대 설립이후 그 이듬해인 1954년 6월 창설되어 현재까지 60기에 이르고 있는 역사와 전통, 최다 졸업생을 자랑하는 실험반입니다.

생약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오늘날 약학 분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미래 신약 개발의 주요 소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생약반은 생약에 대한 지식을 습득, 이해하고 견물을 넓히며 실험실 생활에 대한 기초기술을 습득하고 반원 상호간의 화목을 도모하며 저마다의 개성과 취미를 개발하여 원만한 약학도로서의 자질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생약반은 생약실과 약식실로 이루어졌으며, 생약학을 가르치시는 이민원 교수님과 식물의약품자원학을 가르치시는 황완균 교수님께서 지도교수님을 맡고 계십니다.



이정규(11학번)
반장

생약반은 생약에 대한 지식을 습득, 이해하고 견문을 넓히며 실험실 생활에 대한 기초기술을 습득하고 반원 상호간의 화목을 도모하며 저마다의 개성과 취미를 개발하여 원만한 약학도로서의 자질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학부생 실험을 통해 식물의 생약성분을 추출, 분석하며 이를 약대학보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실험반 주요행사로는 신입생활 영화, 봄 MT, 가을 MT, 졸업생활송회가 있습니다.

특히 생약반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는 여름 힐링캠프(장기채집)입니다. 4박 5일간 생약반원들끼리 제주도, 설악산, 울릉도, 지리산을 4년을 주기로 여름 여행을 가서 서로의 친목을 도모하는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입니다.

중생회는 생약반 동문회로 현재 동문회장은 전 1,2,4대 봉화군수를 지내셨던 엄태항 선배님입니다. 올해 생약반의 신입생활영화회는 엄태항 선배님의 초대를 받아 봉화에서 1박2일로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진행된 생약반 신입 생활영화, 장기채집에 대해 이야기 드리려 합니다.

15.05.30
신입생활영화

이몽룡 생가 → 고령지약초시험장 → 태양광발전소 → 달실마을

5월 30일 아침 8시에 집합하여 이민원교수님, 황완균교수님과 함께 서울에서 출발하여 봉화에 도착하여 엄태항선배님의 가이드 하에 가장 먼저 이몽룡 생가에 도착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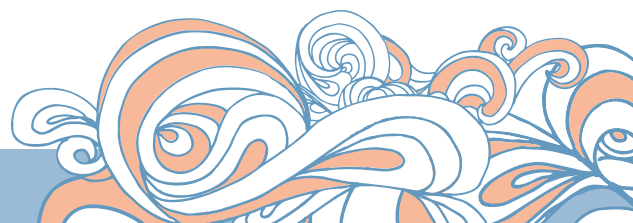
춘향전에 등장한 이몽룡은 연세대학교 설성경교수의 연구 끝에 성이성이라는 실존인물임을 밝혀냈고, 그 인물의 생가가 봉화군에 있는 계서당이라는 것도 밝혀냈습니다. 이몽룡 생가를 방문한 후 생약반의 신입생활영화답게 봉화군에 있는 고령지약초시험장을 방문하였습니다. 2년전 제가 신입생 때

방문할 때만해도 새로 설립되어 아무것도 없었던 약초시험장은 여러 지역에서 나는 약초들로 가득 채워졌고, 여러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책으로만 배웠던 생약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태양광발전소를 방문했습니다. 엄태항 선배님께서 생약반 후배들이 약사 뿐 아니라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대체에너지 분야 등 다른 분야에도 길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주고 싶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닭이 알을 품은 모양을 하는 마을



15.05.30_ 봉화 신입생활영화 달실마을에서



이라고 하는 달실마을로 갔습니다. 이곳은 양반집안인 안동 권씨 집안이 자리 잡은 마을이며, 이곳의 올레길에서 산책을 하고 저녁을 먹는 것으로 신입생 환영회 일정을 마무리 했습니다. 가는 곳 마다 선배님의 가이드와 함께 물심양면으로 지원에 생약반 학생들 모두 즐거운 시간이 되었고 다시 한번 선배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06.28
장기채집

용두암 → 우도와 성산일출봉 → 서귀포시 → 한라산등반

다음은 생약반 행사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장기채집입니다. 올해는 제주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10학번부터 13학번까지 총 28명이 참여했습니다.



15.06.28_ 제주도 장기채집 한라산 정상에서

6월25일부터 29일까지 4박5일간 제주도에서 장기채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마철에 출발하여 많은 걱정이 되었는데 다행히 저희가 움직이는 곳마다 하루 빼고는 맑은 하늘이 계속되어 아주 좋은 여행이 되었습니다.

첫날은 용두암, 둘째날은 우도와 성산일출봉, 셋째날은 서귀포시에서, 사실상 마지막날인 넷째날에는 한라산등반을 하였습니다. 셋째날에 너무 많은 비가 와서 걱정되었지만 넷째날에 한라산등반을 하는 날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늘에는 구름 한점 없이 해가 한라산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라산등반은 백록담을 볼 수 있는 코스 중 성판악코스로 등하산을 했습니다. 한라산 정상에 오르지 정말로 구름 한점 없고 안개도 하나 없이 백록담이 똑바로 내려다 보였습니다. 삼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는 백록담을 생약반원들 모두 낙오자 하나 없이 보게 되어 생약반에 덕을 쌓아주신 선배님들께 감사한 마음과 함께 하산을 하고 제주도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생약반에 덕이 가득 쌓였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사진 몇장과 함께 이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5.06.28_ 제주도 장기채집 천지연폭포에서

조 현 인(8회) 동문



뜻 깊은 잔치

중앙대 약대 8회 동기기 졸업 50주년 기념행사를 마치고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제8회 동기기

유리창에 파이란 하늘이 흐른다. 하늘에선 빛과 구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고 땅엔 단풍 앞에서 고운 갈색 물 흐름소리가 반주를 한다. 단풍잎들의 황홀한 웃음에 취해 남은 여성도 사랑으로 물드는 기쁨이 되길 기원해 본다. 살랑살랑 코스모스가 손짓하고 희희 스쳐가는 황금빛 들판 위로 그리움이 파도처럼 일렁인다.

오늘은 우리 중앙대 약대 8회 동기들의 졸업 50주년 기념행사 날, 10월의 의미 있는 날이다. 이 순간 시간을 거슬러 나를 50년 전 캠퍼스로 데려가고 있다. 젊음만으로 빛이 나던 20대의 싱싱한 모습으로 '의에 죽고 참에 살자'는 모교의 정신을 머릿속에 입력하며 입학식 하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50년이 흘러갔다니....

파이퍼홀로 오르는 길가 높은 계단을 무거운 약전을 꺼안고 통통 튀다시피 다녔고, 실습 시간 가운데 자락에 빵 구멍이 나기도 했으며, 명수대 고갯길은 아름다운 아리랑 고개였고, 길가 빵 가게들은 하룻길 텅 빈 위를 냄새만으로 채워주곤 했는데, 아련히 떠오르는 추억이 난무한다.

어느새 우리를 태운 시간 열차는 우리를 70대로 실어다 났다. 살아온 세월이 마냥 낯설다. 오색 단풍이 절정에 이른 웅장한 모교 품에 안겼다. 도서관으로 올라가는 높은 계단은 하늘을 찌를듯한 단풍나무 아취 속에 묻혀 있었다. 얼마나 다시 밟아보고 싶었던가!!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는 꿈, 내 이름 부르며 다가와 열씨안는 숙자, 뒤로 여성미 넘치던 미모의 내 짝꿍 근희가 반긴다.

행사장엔 날개를 단 듯 동기들의 모여들고 있었다. 잊혀진 이름 떠올려가며 악수하며 떨어질 줄 몰랐다. 멀리 미국에서 날아온 친구들을 둘러싸고 함박웃음 합창을 하기도 했다.



나는 어디를 가고 있나 생각하고픈 공간에 서 있고 동기들은 나를 비추는 거울임을 의식했다. 탕탱한 피부는 어디로 가고 찻쌀떡 피부로 탈바꿈하고 눈가 주름살은 세월의 훈장 같았다. 반세기가 흘러가니 마치 딴 세계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다. 하늘나라로 이사 갔다는 벗들 소식엔 코끝이 찡했다. 인생은 풀잎 끝에 매달린 이슬 같은 것 아닐까? 약사라는 공통분모로 마주한 우리들 이야기꽃은 끊임 줄 몰랐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 함께하며 걸어가는 이 소중한 인연에 깊이 감사한다. 우정은 평생 흘러가는 강물 같은 것이리라. 기념식이 있기까지 8회 동기회장인 삼진제약 조의환 동기와 임원진의 노고가 매우 컸다고 생각한다. 젊은(?) 모교 약대학장께서 자랑스러운 모교의 발전상을 알려 주셨고, 정성으로 모은 모교 발전기금이 전달되었다. 대구에서 오전 모임을 마치고 바빠 달려오셨다는 김일혁 교수님은 마음 속에 영원히 소년이 살고 있는지 여전히 건강해 보이셨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카리스마의 황제 한덕용 교수님, 손동헌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께서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 주셨다. 교수님들께선 앞으로 살아야 할 날들 건강하게 즐겁게 살라 한결같이 당부해 주셨다. 90이 넘으신 한덕용 교수님께서 자리를 떠나시며 제자들과 일일이 악수해 주셔서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제자사랑 애뜻하신 그 모습이 8회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으리라. 2부에서 중대 음대생들의 멋진 연주가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해주었다. 회원들의 노래솜씨가 식장 안을 가득 메웠다. 승자의 솔로실력은 가수를 능가할 정도였다. 장영자 동기의 다리 맛사지 반짝 강기가 동기들의 시선을 집중시켰고, 김연희 동기의 숨을 쉬는 방법이란 책자가 회원 모두에게 선물로 주어졌다. 연이어서 8회엔 훌륭한 동기들이 많아 사회에 공헌한 동기 몇 분이 소개되어 박수세례를 받았다.

헤어져야 할 무대에서 발걸음이 무거웠다. 자꾸만 뒤돌아보며 삼삼오오 사진도 찍고 아쉬움 달렸지만 섭섭하고 허전해 목이 메었다.

8회동기여!

**추억 열차에 탄 지난 세월 동그랗게 푸념하고 이제 편안히 사소서!
삶에서 작은 기쁨에 크게 눈뜨고 행복을 누리소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오늘 행사는 정말로 뜻 깊은 잔치였고, 내가 호흡하는 것 자체가 희망이고 축복이었음을 내안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한 귀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길 봉 진(39회) 준비위원장



39회 (91학 번) 졸 업 20주 년 기 념 식 을 마 치 고

우정은 날개 없는 사랑이다. 변치 않는 우정으로 평생친구를 꿈꾸자!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제39회 동기회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91학번(39회) 졸업20주년 기념식’을 2015년 4월 19일 오후 1시 중앙대 약대 건물 유니버시티클럽에서 했습니다.

저희 91학번(39회)동기회는 2015년 1월 2일 ‘졸업20주년 기념식 준비위원과 홍보위원’을 선임하고, 준비위원장은 길봉진과 정재영, 회장에는 윤재경과 오정석, 준비위원은 16명, 홍보위원에는 28명이 함께 준비했습니다.

2015년 4월 19일 유니버시티클럽 11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영신관을 배경으로 제작된 포토존에서의 촬영을 시작으로 기념품을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교수님과 친구들을 맞이했습니다.

번개모임과 정기모임을 통해 마련한 동기들의 사진과 영상을 상영하고 그동안 동기들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여주면서 축제의 분위기는 서서히 고조되었습니다.

윤재경회장의 1부사회와 20주년 기념사를 시작으로, 중대약대 교수인 민경훈의 개회사, 손동헌교수님의 격려사, 허인회교수님의 한시 건배사(今日重相逢 把酒對良友 오늘 다시 상봉하니, 술잔 들고 좋은 벗과 마주하노라)로 참석한 모든 분들이 행사에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13명의 제자들이 직접 작성한 감사편지와 선물을 아홉 분의 교수님(한덕룡, 손동헌, 이광표, 김기호, 허인회, 임철부, 염정록, 최영욱, 이민원교수님)께 드렸습니다. 동기대표로 김명철이 ‘목련’이란 주제로 시를 낭송하여 교수님들과 동기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점심식사 시간에는 미리 작성한 소감문을 회수해서 베스트소감을 선정하고, 교수님들과 인터뷰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학창시절 모습과 졸업 후 동기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감상하고 달라진 모습을 떠올리며 큰 웃음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2부는 정재영준비위원장의 사회로 동영상 세 편을 감상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니편이 되어줄게”라는 노래를 이상숙이 선창을 한 후 동기들이 한 소절씩 노래한 릴레이송 동영상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에 있지만 마음만은 동기들과 함께하는 마충운, 진정아, 이정수, 장인순이 보내온 해외축하영상입니다. 특히 마충운과 진정아는 플래카드를 만들어 멀리 그랜드캐년과 세도나까지 가서 20주년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91학번 동기들의 자녀들이 20주년 축하를 위해 다양한 재능과 끼를 발산한 동영상이었습니다. 자녀들의 축하영상 속에는 동기들의 학창시절 모습이 보여 코끝이 찡했습니다.

박종혁과 김해종의 듀엣공연은 동기에 대한 한없는 사랑을 표현한 “A Love Until The End Of Time”을 전하면서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김민선, 박소연, 신혜연, 윤희경, 이상숙, 이은경, 이정민, 전해선, 조권현, 한은경이 결성한 팀 <구일걸스>는 힘들고 지친 세상에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바람이 불어오는 곳”과 콘서트장에 온 듯 댄스가 가미된 앙콜송 “벚꽃엔딩”을 공연해줘서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우리 동기 중에 먼저 하늘나라로 간 김성진의 이름을 딴 <성진회>가 여러 가지 기부활동과 소년소녀 가장 돕기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성진회의 의미를 다시금 새겼습니다. 또

한 베스트소감에 선정된 한덕룡교수님, 오지윤, 주영선, 홍창준은 상품도 받고 소감문을 낭송하여 그날의 느낌을 공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션이 있는 행운권추첨’을 했습니다. 행운권추첨이 단순한 추첨으로 끝나지 않게 상품을 받기 전에는 신나는 음악에 맞춰 미션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4등은 ‘하이파이브상’으로 상품을 받으면 하이파이브를 하는 것이고, 3등 ‘빅그(해라)상’은 모든 사람들과 포옹을 하는 것입니다. 2등상은 ‘확그냥썸나상’으로 엉덩이로 이름쓰기나 막춤을 추는 것입니다. 1등은 ‘치명(적물주)상’으로 3차의 비용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행사들이 동기들의 적극적인 미션수행과 참가로 큰 웃음과 깊은 감동을 남겼습니다.

윤재경회장이 폐회사를 하고 주훈정이 행사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즉석에서 만든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동영상을 합창하면서 행사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교수님들, 내빈들과 동기들이 뜨겁게 하나가 되어, 멈춰진 시간 속에 흑석동 모교에서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91학번(39회) 졸업20주년 기념식’을 성대하게 마무리 했습니다.

졸업 후 20년 만에 동기들 연락처를 완성한 신순옥, 실험반 단위로 홍보를 해준 동기들, 초대장과 기념품과 행사지를 만든 동기들, 감사편지를 써준 동기들, 구일동밴드의 리더로 수고한 민경훈, 감사패를 받은 김명철과 주훈정, 포토존을 제작한 기봉훈, 동영상과 음향을 총괄하고 기념품을 후원받은 주훈정,



릴레이송에 참여한 동기들, 자녀축하영상을 보내준 동기들과 자녀들, 해외축하영상을 보내준 동기들, 공연을 해준 박종혁과 김해중, 구일걸스의 리더로 무대장식을 해준 이상숙, 선물을 포장하고 배송해준 오정석회장과 이은경, 회계로서 회비관리를 해준 김일웅, 항상 곁에서 응원해준 이구영, 맛깔난 간식을 챙겨준 김민선과 신혜연과 조권현, 명찰과 방명록을 챙겨준 윤희경, 감사패의 부상인 귀요미인형을 준비해준 조권현, 해외축하영상의 편지낭송을 해준 박소연, 419에 생일축하를 받은 한은경, 진행도우미를 해준 방근철과 김일웅, 안내를 맡아준 이구영과 한선주와 류미라와 신순옥과 류호철, 화환을 챙겨준 동문회, 대약, 90학번, 92학번, 류호철, 주훈정에게 감사합니다.

멀리에서 와준 지역을 대표하는 동기들~김해 이정민, 군산 오지윤, 대전 민정아, 울산 조경미, 부산 안미정, 전주 김성정, 목포 권연정, 제주 김귀일과 김창호...여러분의 동기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밴드를 통해 친해졌고 정모와 번개로 가까워진 구미나, 권민창, 권서양, 권욱, 권태혁, 김민수, 김민정, 김상래, 김수현, 김영천, 김영혜, 김학순, 김희영, 민필기, 박미정, 박성훈, 박승현, 박종호, 박준상, 신창열, 오윤숙, 왕훈식, 윤기숙, 이미경, 이용준, 이정근, 이준희, 이희정, 전병선, 정명주, 정우흠, 최숙희, 탁규석, 홍창준...모두모두 앞으로도 건강한 모습으로 자주 만나길 바랍니다.

너무나 아쉽게 참석하지 못한 국승영, 마충운, 박희석, 박영란, 양성준, 유정수, 임재용, 진정아...마음으로 참석해서 응원해주고 함께해준 여러 동기들에게도 다음 만남을 기약하고자 합니다. 참석해주신 장재인동문회장님, 한상범학장님, 황완교교수님, 이영주동문회 사무부총장님, 행사를 도와주신 박은희동문회실장님에게도 감사합니다. 끝으로 졸업20주년 준비위원장으로 부족하지만 동기들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열정을 다해 일한 길봉진을 위해 곁에서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를 도와준 사랑하는 저희 아내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P.S. 앞으로도 졸업20주년~
30~40~50주년까지 시간이 흐르면서~
평생친구가 되어가는 여정!!
한 친구를 이해한다는 것!!
한 친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
한 친구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할 수 있었던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91학번(39회)
졸업20주년 기념식이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무지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최 병 철(21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심사위원



바이오헬약품의 전반적인 이해

의약품은 크게 화학합성의약품과 바이오헬약품으로 나뉘며, 그중 바이오헬약품은 지난 10년 동안 눈부신 발전을 해왔다. 이러한 바이오헬약품의 급부상은 기존의 합성의약품 개발을 둔화시켰으며 앞으로 바이오헬약품을 전문으로 제약기업들이 큰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계 바이오헬약품 시장

2012년 전세계 제약시장 규모는 9,895억 달러(약 1,000조)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4.4% 성장했으며 2016년에는 1조 1,799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합성의약품은 2011년 8.5%에 이르던 성장률은 둔화 추세를 보이며 향후 2016년까지 연평균 4.5%의 성장률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바이오헬약품 시장은 2009년부터 연평균 6.8%로 성장해 2012년 1,795억 달러 규모에 이르고 있다. 현재 바이오헬약품은 전체 제약시장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으나 향후 2016년까지 연평균 9.9%로 성장하여 2,382억 달러로 20%에 이를 전망이다. 이러한 바이오헬약품 시장의 고성장은 난치성 질환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늘어났고, 글로벌 제약사들의 주력제품들이 특허만료가 되면서 막대한 투자 대비 생산성이 떨어지는 합성신약 개발보다는 바이오헬신약의 개발이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바이오헬약품 제품 현황

현재 바이오헬약품 시장은 크게 1세대 단백질치료제와 항체의약품, 그리고 백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단백질치료제와 항체의약품이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 급성장하며 바이오헬시장의 성장을 이끌어 왔다. 휴물린(Humulin)을 시작으로 90년대까지 바이오헬시장의 성장을 이끌던 1세대 바이오헬약품은 2000년대에 들어 대부분의 특허가 만료되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2000년대 초부터 급부상한 항체의약품은 계속해서 적응증을 넓히고 새로운 신약이 개발되면서 여전히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고, 2015년 이후 주요 항체의약품의 특허만료가 시작됨에 따라 바이오헬시밀러 시장을 통해 바이오헬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단백질치료제에 이어 최근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차세대 바이오헬약품인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뜨겁지만 아직 시작하는 단계에 불과하다.

바이오의약품의 특징

바이오의약품은 유전자 재조합, 세포배양, 세포융합 등 생물공학기술(biotechnology)을 이용해 생산되는 의약품을 말한다. 바이오의약품은 합성의약품에 비해서 분자량이 크고 구조도 복잡하고 생산공정에 있어서도 복잡한 생물공정을 거치게 된다. 또한 살아있는 유기물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개체마다 다른 구성 성분을 가지고 있어 유효성분의 정의가 어렵고, 개발과정에서 불순물에 의한 오염 가능성이 크다. 바이오의약품은 질환별 표적치료제 개발이 가능해 합성의약품보다 부작용이 적으며, 임상 성공률이 높고 희귀성이나 난치성 질병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다.

바이오의약품의 개념

1 바이오의약품 Biologics의 정의

바이오의약품(규정상의 명칭: 생물약품)은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된 것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보건 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으로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제제를 말한다.

2 바이오시밀러 Biosimilar

바이오 신약을 복제하여 만든 것으로 바이오 신약과 품질 및 비임상·임상적 비교 동등성이 입증된 바이오 의약품을 말한다.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만료로 바이오 시밀러 시장은 열릴 수 밖에 없는 시장이다.

3 바이오베터 Biobetter

오리지널 의약품의 효능과 부작용을 개선한 것으로 슈퍼 바이오시밀러(superbiosimilar)라고도 하며, 독자적인 특허가 인정되기에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만료와 상관 없이 시장에 출시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 바이오의약품보다 성능이 향상되었거나 환자의 편의성을 증대시켰기 때문에 현재 단백

질 의약품 시장에서는 바이오베터가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바이오시밀러보다 훨씬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바이오의약품의 종류

1 단백질의약품 Protein drug

단백질의약품은 유전자 재조합기술, 세포 배양기술 및 바이오 공정기술을 바탕으로 의약품 단백질을 미생물이나 동물세포 시스템을 이용한 대량생산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이 중 1세대는 천연 단백질과 동일한 구조의 단백질을 사용한 제품이고, 2세대는 단백질 재설계나 단백질 공학기술을 응용하여 신규 또는 개선된 효능의 제품을 설계하거나 안정화를 통한 지속성 제제화 등을 시킨 제품이다. 특히 유전자 재조합기술은 미생물을 세포공장으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미생물 이용기술로 생산량이 한정된 백신·호르몬·항체·생체기능성 단백질 같은 유용 단백질을 미생물 숙주세포에서 대량생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유전자재조합 휴먼인슐린 Humulin

유전자재조합 휴먼인슐린은 사람의 인슐린과 똑같은 분자구조를 가진 인슐린으로 대체로 박테리아, 그리고 효모, 식물 등에서 제조한다. 가장 먼저 인간 유전자를 이용해서 인슐린을 만든 것은 미국의 유명한 제넨텍(Genentech)이라는 회사인데, 사람 인슐린 유전자중 A chain과 B chain을 각각 *E. coli* 내에서 대량 생산한 후 이를 분리하고, 다시 두 chain을 화학적인 방법으로 활성이 있는 3차 구조를 만드는 과정을 거쳐 제조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매우 복잡하며, 여러 과정에서 오염이나 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이 많이 존재한다.

백신 Vaccine

유전자 백신은 기존의 생백신, 약독화 백신(live 또는 attenuated vaccine) 또는 subunit백신이 병원균 그 자체나 병원균의 일부 구성단백질을 면역접종에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이들 유전자(gene)를 백신으로 사용한다. 유전자백신은 병원균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생백신이나 약독화 백

신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HIV, HCV 등 많은 감염성 질병들에 대한 예방 및 치료용 백신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백신 형태는 안전성 문제나 효능 문제 등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대체 수단으로 유전자 백신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면역글로불린
Immunoglobulin

항체는 세균감염에서는 독소를 중화하고 옹소닌 작용을 하며 보체를 도와 세균을 죽인다. 바이러스감염에서는 바이러스의 세포침입을 차단하며 자연살세포에 의한 항체매개 세포독성을 촉진하고 바이러스를 단독으로 혹은 보체와 함께 중화시킨다. 인체에 항원물질을 투여하여 질환에 대한 방어 항체를 스스로 형성하도록 하는 것은 능동면역이며 예방접종이 중요한 예이다. 이에 반해 이미 형성된 항체를 투여하는 것이 수동면역이다. 수동면역은 첫째 항체를 생성하지 못하는 선천적 혹은 후천적 B림프구결핍증이 있을 때 보충적으로 사용되며, 둘째 감염병에 대한 면역이 없어 질병에 이환되면 심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이 이미 감염원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 혹은 백신투여로 면역반응이 생성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경우에 예방적으로 사용되고, 셋째 질병이 이미 있지만 항체가 질병을 약화시킬 수 있을 때 치료적으로 사용된다.

호르몬
Hormone

재조합 호르몬 관련 단백질은 크게 인슐린과 성장호르몬 관련 제품으로 나눌 수 있다. 인슐린은 재조합 DNA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최초의 의약품 단백질로서 1982년 제품화된 후 20년이 넘도록 판매되고 있다. 성장 호르몬은 1985년에 프로트로핀이라는 이름으로 상품화가 이루어진 후, 여러 회사에 의해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다. 이 밖에도 다수의 여포자극호르몬 및 글루카곤 등 호르몬 관련 단백질이 개발되었다.

효소
Enzyme

현재 다양한 종류의 효소가 혈전용해제, 항응고제, 항암제 등 여러 가지 용도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혈전용해제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스트렙토키나제는 플라스미노겐과 특이적으로 결합함으로써 혈전 용해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3년에 낭포성 섬유증 치료용으로 개발된 풀모자임은 재조합 DNase로서 낭포성 섬유증 환자의 폐에 침투한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 분비된 다량의 DNA를 분해시킴으로써 호흡기 장애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사이토카인
Cytokine

사이토카인은 체내에 극소량 존재하지만, 여러 가지 조절 작용을 담당하는 단백질성 조절인자로서 특정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수용체에 결합하여 세포내 신호전달 과정을 촉발시키는 세포 사이의 화학적 정보 전달자(chemical messenger)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이토카인은 백혈구로부터 만들어지는데, 면역반응이나 감염 혹은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러 대사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인터페론(inteferon), 인터루킨(interleukin), 콜로니촉진인자(CSF, colony stimulating factor), 종양괴사인자(TNF, tumor necrosis factor) 등이 포함되며, 대부분의 사이토카인은 여러 세포에서 만들어지고, 한 종류 이상의 세포에 영향을 미치며, 세포에 따라 조절기작이 다른 경우도 많다.

인터페론 IFN, interferon

인터페론은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과 같은 다양한 자극에 반응하여 면역세포에서 합성 되는 작은 단백질로서 바이러스의 복제를 억제하고, T 임파구의 면역반응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즉 인터페론은 세포막의 인터페론 수용체에 결합해서 여러 가지 단백질의 생산을 유도하며 이들에 의해 항바이러스 작용, 세포증식 억제 작용, 면역 조절 작용을 나타낸다. 인터페론은 α , β , γ 의 세 종류가 있는데, IFN- α 는 HBV, HCV, 모상세포백혈병, 악성흑색종, 후천성 면역결핍증 관련 Kaposi 육종, 신암, 피부 T세포림프종, 만성골수성 백혈병 등에 사용하며, IFN- β 는 다발성경화증에 사용한다.

인터루킨 Interleukin

림프구에 의해 신체에서 생성되는 사이토카인으로 표적세포

에 있는 세포표면 수용체를 통해 이들 작용이 전달된다. 발견된 순서대로 IL-1부터 IL-23으로 번호가 붙여지고 있다. 1970년대에 발견된 이후 몇 종류의 인터류킨이 인체의 면역계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인식되어 왔다. 가장 잘 알려진 인터류킨은 인터류킨-1(IL-1)과 인터류킨-2(IL-2)이다. 그러나 이들 인터류킨들이 과도하게 존재하는 경우 여러 기관에서 감염성질환이나 자가면역질환을 일으킬 있다. IL-6 차단제는 류마티스관절염, IL-12와 23 차단제는 건선에 사용한다.

— **종양괴사인자** TNF, tumor necrosis factor

암세균에 감염되었을 때 간혹 출혈성 괴사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이 현상은 세균벽에서 나오는 내독소인 지질다당체에 의해 T세포에서 분비되는 종양을 괴사시키는 물질 때문이며 이를 종양괴사인자라 한다. TNF에는 TNF- α 는 활성화된 대식세포가, TNF- β 는 활성화된 T세포에서 분비된다. TNF는 암세포를 죽일 뿐만 아니라 정상세포에도 작용하여 식세포의 세균 살해작용, T세포의 활성화 그리고 B세포의 항체생산을 위한 보조인자로서의 작용도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사이토카인은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물질이며 사이토카인의 이상은 염증이나 알레르기, 암 발생을 초래한다. TNF는 암세포를 파괴하는 작용뿐만 아니라 발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염증작용, 림프구를 포함한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작용, 그리고 수면, 통증, 식욕 등을 조절하는 생리작용 등을 들 수 있다. TNF가 과도하게 존재하는 경우 여러 기관에서 감염성질환이나 자가면역질환을 일으킬 있다. TNF저해제는 류마티스관절염, 건선, 성관절염, 강직성척추염, 건선, 크론병, 궤양성대장염에 사용한다.

— **적혈구생성촉진인자** EPO, erythropoietin

EPO는 적혈구 수를 증가시켜, 항암치료를 받은 환자에서 적혈구 수혈을 감소시켜 준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암환자에서 보다는 만성신장질환 환자에서 더 많이 사용한다.

— **혈소판생성촉진인자** TPO, thrombopoietin

TPO는 혈소판 수치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며, 처음 개발된 제제는 중화 항체가 생겨 현재는 새로운 rhuTPO가 개발되었다. 따라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글로불린 또는 비장 절제술에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만성 면역성(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환자에서의 저혈소판증 치료에 사용한다.

— **골로니촉진인자** CSF, colony stimulating factor

골수의 전구세포에 작용하여, 특정한 세포의 분화 및 성장을 촉진하는 단백질 인자이다. 이와 같이 전구세포에 작용하여 특정한 세포 집단의 분화를 촉진하는 사이토카인을 CSF라고 한다. 혈구생성 과정에 관여하는 사이토카인에는 IL-3, GM-CSF, M-CSF, G-CSF, IL-7 등이 있으며, IL-3는 CD4 T림프구에 의해서 생산되어 대부분의 미성숙 골수세포에 작용하여 여러 형태의 혈구를 생산해 내는 사이토카인이다. G-CSF(Filgrastim)와 GM-CSF(Sargramostim)는 백혈구 수치를 올리며, 항암치료를 받은 환자에서 감염의 위험성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호중구감소증(고형암 또는 혈액종양의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 골수이형성 증후군 또는 재생불량성빈혈에 따른, 선천성·특발성,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증 치료에 지장을 초래하는) 조혈모세포의 말초혈중으로의 동원, 조혈모세포이식시의 호중구수 증가촉진을 위해 사용한다.

— **항체**

수동면역 기전을 이용하여 항체 단백질을 치료제로 처음 사용한 것은 1920년대이며, 항혈청을 사람 또는 말 등에서 얻어 치료에 이용하였다. 항체 정제 기술이 발달한 이후에는 혈청으로부터 면역글로불린을 분리 정제하여 치료제로 이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치료제가 목표 분자의 활성화 부위에 작용하여 그 물질의 활동을 억제하는 작용기전을 갖고 있다면 특정 물질을 분자단위로 정확히 인지할 수 있는 항체가 치료제로 쓰일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항체는 소분자 화합물질로 되어 있는 다른 일반 치료제에 비

하여 분자량이 지나치게 크고, 세포 내 목표분자로의 이동 등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단클론 항체는 분자단위의 물질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는 높은 특이성을 갖기 때문에, 특정 질환에서는 일찍부터 치료제로의 개발이 기대되었다. 이미 장기이식수술 후에 나타나는 이식거부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면역억제제로 OKT3라는 T림프구를 억제하는 항체가 1980년 중반에 최초의 치료용 단클론 항체로 허가받아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치료용 항체는 주로 암치료제, 자가면역질환을 비롯한 면역억제제, 약물남용 치료제 등으로 개발되고 있다.

2 세포치료제

세포치료제는 세포와 조직의 기능을 복원하기 위하여 살아있는 자가(autologous), 동종(allogenic), 혹은 이종(xenogenic)의 세포를 체외에서 증식, 선별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포의 생물학적 특성을 변화시키는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치료, 진단,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세포 자체를 약으로 활용하는 세포치료제는 환자로부터 분리한 세포를 원하는 특정 성질을 갖도록 조작 및 배양하여 그 환자에게 다시 주입하는 경우가 많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량 생산되는 일반 의약품과 비하여 '맞춤형 의약품'이라고 불린다. 세포치료제는 사용하는 세포의 종류 및 분화 정도에 따라 체세포치료제와 줄기세포치료제로 나눌 수 있으며, 줄기세포치료제는 다시 줄기세포가 얻어지는 소스에 따라 크게 배아줄기세포치료제, 성체줄기세포치료제로 분류할 수 있다. 체세포(somatic cell)치료제는 체세포를 이용한 치료로서 암 치료를 위한 수지상세포가 대표적인 체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이다. 성체줄기세포는 신생아와 성인의 발달된 장기와 기관에서 발견되는 세포로, 상처나 사고로 조직과 세포가 손상되었을 때 근육, 뼈, 지방, 신경 등의 세포로 분화돼 손상된 부위를 복구시킬 수

있는 세포이다. 성체줄기세포는 전 세계 줄기세포치료제 시장의 99%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산업화가 상당히 진척되어 있는 분야이다.

3 유전자치료제

유전자치료제는 질병치료 등을 목적으로 인체에 투입하는 유전물질 자체 또는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의약품으로, 이를 환자의 체내로 도입시켜 결손 유전자를 교정하거나 세포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여 암, 감염성질환, 유전질환 등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사용한다. 즉, 암 조직 자체 또는 환자를 대상으로 외부에서 정상적인 유전자를 주입하여 이상이 있는 유전자를 직접 교정하는 방법이다. 또한 손상된 유전자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건강한 유전자를 주입해 암세포가 줄어들고 죽도록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유전자치료로는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면역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를 주입하는 면역강화요법이 가장 많고 암세포의 세포자멸사(apoptosis)를 유도하는 유전자나 암억제 유전자를 넣는 방법들에 이용되고 있다.

인류의 보건복지가 향상됨에 따라 난치성 질환의 치료를 위한 고순도의 단백질성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한 미생물 발현시스템을 이용한 재조합 의약품 생산기술의 개발은 미래 제약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다국적 제약사들의 바이오신약은 이미 전 세계 의약품 매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기존의 제약업체들은 물론 대기업까지 바이오의약품 산업에 진출하고 있다. 이에 우리 개국가에서도 새롭게 부상하는 이들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지식이 필요할 것이다.



이 상 준 E-mail sjlee5029@cau.ac.kr

직위 교수 전공 산업약학

학력
 1973.03-1977.02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약학부 학사
 1981.03-1983.02 중앙대학원 약학대학 약물학 석사
 1983.03-1986.09 중앙대학원 약학대학 약물학 박사

경력
 1979.04-2005.07 (주)종근당 상무이사
 1988.05-1989.07 University of Missouri Post- Doc. Fellow Research
 1990.03-1993.02 중앙대학교 대학원 강사
 1991.08-1993.08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강사
 1996.01-1998.07 보건복지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2006.03-2011.01 (주)코오롱생명과학 부사장
 2010.01-2012.01 식품의약품안전청 중앙약사심의위원회
 2011.02-2011.12 (주)코오롱생명과학 임원(비상근)
 2011.12-2015.01 안전성평가연구소(미래창조과학부) 소장
 2013.03-2014.02 건양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
 2014.08-2015.02 아주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
 2015.03-현재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서 원 희 E-mail wsuh@cau.ac.kr

직위 부교수 전공 생화학

학력
 1990.03-1994.02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학사
 1995.09-2001.08 University of Utah, Dept of Pharmaceutics & Pharmaceutical Chemistry 박사

경력
 2001.08-2003.05 University of Utah, Dept of Human Molecular Biology, Postdoc Fellow
 2003.06-2006.05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삼성서울병원, 연구조교수
 2006.09-2011.02 CHA 의과학대학교 의생명과학과, 조교수/부교수
 2011.03-2015.02 아주대학교 약학과, 부교수
 2015.03-present 중앙대학교 약학과, 부교수



정 경 혜 E-mail jnkh7@cau.ac.kr

직위 조교수 전공 임상약학

학력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제약학과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대학원 약제학 전공 (약학석사)
 영남대학교 약학과(약학박사)

경력
 1991 미국 약사, California State, U.S.A.
 2008 약물치료학 specialist(Board certified pharmacotherapy specialist(BCPS), U.S.A.
 1994-현재 대한약사회 및 지부, 위드팜, 온누리 약국체인등 연수교육
 2000-2015.02 정문 약국 실장, preceptor
 2009.01-현재 대한약사통신 온라인 임상약학 강의
 2011.11-현재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교육연수원 임상약학 강좌
 2013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강사(심혈관계 약물치료학 강의)
 2013-2014 Preceptor 교육
 2013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강사(조제 및 복약지도 강의)
 2014-2015. 02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겸임교수
 현재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조교수



이 지 윤 E-mail jylee98@cau.ac.kr

직위 조교수 전공 병태생리학

학력
 1998.03-2002.02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약학부 약학사
 2002.03-2004.02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약학석사 (병태생리학 전공)
 2004.03-2007.02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약학박사 (병태생리학 전공)

경력
 2007.03-2008.02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강사(실험병태생리학 담당)
 2008.05-2011.02 University of Rochester(Medical Center), Postdoctoral Fellow
 2011.03-2013.04 Georgia State University (Center for Inflammation, Immunity & Infection), Research Scientist
 2013.05-2015.02 Georgia State University (Institute for Biomedical Science), Research Assistant Professor
 2015.03-현재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조교수

2015-1학기 약학대학 동문회장학금 수혜자



번호	장학금명	장학금액(원)	전공	성명
1	본동문회	2,000,000	제약학	김민지
2	본동문회	1,000,000	약학	김솔이
3	본동문회(김명섭)	2,000,000	제약학	김혜진
4	본동문회	1,000,000	약학	박태광
5	본동문회	1,000,000	약학	서동영
6	본동문회(청호)	2,000,000	약학	이성수
7	본동문회	2,000,000	약학	이창영
8	본동문회	1,000,000	제약학	이희주
9	본동문회	1,000,000	제약학	홍록기
10	본동문회	2,000,000	약학	홍정민
11	여동문회	1,000,000	약학	고민혜
12	안양동문회	1,000,000	약학	심기현
13	78학번동문회	1,000,000	제약학	구형모
14	78학번동문회	1,000,000	약학	최영국
15	안산동문회	1,000,000	제약학	안민지
16	안산동문회	1,000,000	약학부	김민정
17	부산동문회	500,000	약학	박제혁
18	나사모동문회	1,500,000	제약학	이여름
19	약제반동문회	2,000,000	약학	이은석
20	약품물리반 동문회	700,000	약학	박은혜
21	약품물리반 동문회	700,000	약학	정진희
22	약품물리반 동문회	700,000	약학	한상구
23	병태생리학교실 장학회	1,000,000	약학	김순식
총 계		28,100,000		

장학기금현황

2015년 8월 31일 현재



장재인(17회) 동문회장	10,000,000	한갑현(26회) 사무총장	7,400,000
손동헌(1회) 명예교수	30,000,000	이채권(26회) 동문	5,000,000
홍흥만(1회) 동기회장	1,000,000	이종양(26회) 동문	3,000,000
1회 동기회 일동	1,000,000	성정희(26회) 동문	360,000
故 김명섭(5회) 자문위원	100,000,000	김정호(27회) 사무부총장	6,000,000
용영일(7회) 동문	10,000,000	남상진(27회) 동문	3,000,000
최옥출(11회) 동문	1,000,000	박영달(27회) 동문	3,000,000
김윤국(14회) 동문	5,000,000	권상수(27회) 동문	3,000,000
최해광(17회) 동문	3,000,000	최충식(27회) 이사	3,000,000
이경옥(19회) 동문	3,000,000	민병희(27회) 이사	600,000
임경원(20회), 이현숙(31회) 동문	7,200,000	이영주(28회) 사무부총장	6,000,000
김현태(20회) 부회장	3,000,000	양덕숙(28회) 부회장	5,000,000
이상일(20회) 부회장	8,000,000	장원규(28회) 동문	3,000,000
이극선(20회) 동문	3,000,000	이경우(29회) 동문	900,000
정찬현(20회) 동문	3,000,000	곽필신(30회) 동문	3,000,000
이승해(23회) 동문	10,000,000	고석일(30회) 동문	3,000,000
이내홍(25회) 부회장	3,000,000	이병두(40회) 동문	3,000,000
이동규(25회) 동문	8,000,000	김정민(41회) 동문	3,000,000
김영후(26회) 이사	6,000,000	정원희(53회) 동문	2,000,000



In Jeopardy

“위험에 빠지다”

양산을 건져낼 것인가. 흘려 보낼 것인가.
노란 유채꽃들을 통해 희망을 노래합니다.
산적한 문제를 안고 출범하는 ‘김현태호’



김기명(18회)
편집위원장



김기명(18회)
편집위원장

79년부터 약국운영을 해왔다..
똑같은 사실인데도 각자의 견해와 입장이 바뀌어져 고착된지 오래..
도시락 포장을 갖고온..
제약사 직원의 정성이 감격스럽다..
공짜 점심은 없다지만...

박희용(23회)
편집위원

지인의 배려로 여름휴가를 에어컨과 TV, 그리고 무엇보다 번잡함과
소란스러움이 없는 곳에서 호젓함을 만끽하고 돌아왔다.
평평한 긴장감으로 유일하게 품잡는 선풍기 바람과 어느 순간부터
망각하고 살았던 희미한 모기향 불빛이 감미로웠다.
잊고 사는 것이 너무 많다!

이해룡(28회)
편집위원

사무부총장에서 사무총장으로 20대 회장단에 승선했습니다.
일을 두려워해 본 적은 없지만 다시금 새로 시작하는 입장,
초심으로 돌아갈 일도 없이(?) 무조건 열심히 땀 생각입니다.
선후배 동문들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관심을 요청합니다.

한국휴텍스제약(주)는 최신시설을 이용하여 표준화된 제조공정과 엄격한 품질관리로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To Provide a Science Technical Solution For Human Health
인류건강을 과학적 기술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기업



대표이사/약학박사 이 상 일

안녕하십니까

한국휴텍스제약(주) 대표이사 이상일입니다.

저희 한국휴텍스제약은 1969년 국내제약업 제8호로서 제약산업을 시작하여, 우수의약품을 제조 공급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세계화의 시대에 발맞춰 **획기적 신약을 개발**하여 모든 **인류의 건강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신약개발에 연구,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시대에 발맞추어 치매, 뇌졸중, 고지혈증 등의 신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원대 약학대학 협약 : MPPE, ASE 특허 임상개발 중)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 논리에 따른 기술 및 영업 비전이 있는 기업만이 도전할 수 있고, 미지 세계를 개척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새로운 각오로 생산, 영업, 연구개발에 정진하여 노사와 합심해 **사회발전에 일익을 담당**,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한국휴텍스제약(주)

본사 경기 오산시 외삼미동 53번지 강남빌딩 2층 / TEL. 031-377-7900 / FAX. 031-377-7911
공장 경기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907-6번지 / TEL. 031-377-7903 / FAX. 031-377-7912



감기까지 생각한다면 케어가글

입속살균은 물론 편도염, 후두염, 인두염, 구내염까지
우리가족 입속건강과 감기예방을 위해~



광고심의필 : 1271-0100

강력한 입속세균 살균! 살균력이 강한 의약품으로 구취, 충치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감기예방까지 OK! 벤제토늄염화물 성분으로 감기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제품문의 080-916-9000

■ 성분 100mL 중 벤제토늄염화물(KP) 10mg, 헥사메타르세스-헥세히올 ● 효능효과 구강염증 및 인후(후구)염 예방·방치·소독·살균, 감기예방, 감기에 따른 증상(후두염, 인두염, 편도염, 치주(치아)우주염, 구내염, 구강염), 발치(이빨)후염수술 또는 구강수술 후의 소독·살균 및 충치의 예방
■ 용법용량 동성 1일 2~3회, 1회 적당량(15mL)을 사용해서 인관을 헹구어내(물로 헹구어 낼 필요가 없음)이다 ● 사용상의 주의사항 1. 다음 환자는 투여하지 말 것 ① 30개월 이하의 유아 ② 다음 환자는 신중히 투여할 것 ③ 소아-경련을 유발할 수 있다 ④ 다음 환자는 사용 전에 의사와 상의 할 것 (구내에 상처가 심한 사람 ④ 탈분해적 주의사항) 1. 정해진 용법·용량을 지킬 것 2. 소아 사용시 보호자 감독하에 사용할 것 3. 본 제품은 구강염증에 적용으로만 사용하고 내복용, 기타에 사용하지 말 것 4. 본 제품을 사용할때 지극히 주의할 것 5. 구강염증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의 상의 할 것 5. 수일간 사용시에도 증상의 개선이 없을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의 상의 할 것 5. 저장상의 주의사항 1. 소아의 손이 닿지 않도록 보관할 것 2. 직사광선을 피하고 되도록이면 서늘한 곳에 보관할 것 3. 우유(장)사용방지 및 품질보전을 위하여 다른 용기에 바꾸어 보관하지 말 것





Coenzyme Q10

<p>Anti-oxidative Vitami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β - Carotene Vitamin C Vitamin E 	<p>Anti-oxidative Minera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Zinc oxide Selenium
---	---

Anti-aging

성인병 예방! 노화방지! 생활에 활력! 웰타민[®] 으로 해결하세요!

일반의약품

[성분 · 함량]
 1캡슐 중 유비데카레논(코엔자임Q10) 5mg, 토코페롤아세테이트 200mg, 아스코르브산 500mg, 베타카로틴30%현탁액 10mg, 산화아연 17.43mg, 셀레늄0.1%가루 25mg

[효능 · 효과]
 1. 다음 경우의 비타민 A, C, E의 보급
 - 육체피로, 임신 · 수유기, 병중 · 병후의 체력저하시, 노년기
 - 눈의 건조감의 완화, 야맹증 - 햇빛 · 피부병 등에 의한 색소침착(기미, 주근깨)의 완화, 잇몸출혈 · 비출혈(코피) 예방
 - 말초혈행장애 및 갱년기시 다음 증상의 완화 : 어깨 · 목결림, 수족저림 · 수족냉증 (손발이 차가움)
 2. 아연의 보급

[용법 · 용량] 성인 1일 2회, 1회 1캡슐 복용

[포장단위] 60, 120캡슐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612호

전화 02-565-1700 팩스 02-564-1701 홈페이지 www.caupharm.or.kr 이메일 capa21@hanafos.com